

불(火)기원 신화 考

— 주제의 층위와 문화사 반영에 대하여 —

김 기 호*

〈차 례〉

I. 머리말	1. 불의 획득
II. 존재양상	2.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
1. 창세신화와 불의 기원	3. 구조 층위의 보편과 특수
2. 우주적 홍수와 불의 기원	IV. 진화론적 문화사 반영형태
3. 단일신화적 불의 기원	V. 맺음말
III. 서사구조와 주제의 층위	

I. 머리말

모든 인간의 발견들 중 불을 얻거나 불을 켜는 방법의 발견은 인류역사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불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서 불을 최초로 얻게 되었는가, 혹은 나무나 돌로부터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하는 불이용의 진화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러한 불기원 이야기들은 두 수준에서 중요하게 이해된다. 먼저 이들 이야기들은 인간들이 그들의 삶과 사회의 기원에 대해서 내성적으로 살피기 시작할 때, 이 때 제기된 문제를 사유의 상상이라는 차원에서 풀기위

* 영남대학교 박사과정

해 창출한 추측들이자, 그들의 최초 노력들이다. 이 때 이러한 그들의 추측은 과학적 사유의 표현이며, 문화진화에 대한 신성한 역사로 이해된다. 둘째 이들 이야기들이 신화의 보편적 주제인 기원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의 주체가 신격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상과 허구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신화적 散文이다. 따라서 불기원 신화는 그것을 창출하고 전승한 집단들의 과학이자, 문화의 신성한 역사를 말해준다. 그리고 상상과 허구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신화적 산문의 모습을 보여준다.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불에 대한 선행연구를 볼 때,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진다. 먼저 불신숭배에 대한 연구이다. 최희수교수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記事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고대 문화에도 다른 고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불신이 있었고 고구려에서는 이 불신을 수신이라 불렀다’라는 결론을 이끌었다.¹⁾ 그의 고구려 불신숭배에 대한 주장은 고구려 무덤벽화에서 확인된다. 집안 사신무덤벽화에서 볼 수 있는 불신이 그것이다. 그러나 최희수교수도 밝히고 있듯이 그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우리 민족 고대문화에서의 불신숭배에 대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불의 상징성에 대한 고찰이다. 황패강교수²⁾와 김무조교수³⁾의 연구가 그것이다. 황패강교수는 현진건의 단편소설 <불>에 등장하는 주인공 순이의 행동을 불이 지니고 있는 근원성과 관련짓고 있다. 김무조교수는 불의 원천적 사상과 연관지어 인간이 불의 상징을 실화에 어떻게 원용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기원 신화에 대한 고찰이다. 불기원 신화와 관련한 연구에는 김현선교수⁴⁾의 것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김현선교수는 창세신화에서 불기원에 대한 신화소를 독립시킨

1) 최희수, <고구려의 불신(火神)숭배> 『조선민속연구』 제1권 연변조선민속학회 조선족민속연구소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p.81-92.
 2) 황패강, <現代小說과 原形으로 ‘불’의 形象試考> 『한국서사문학연구』(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2), pp.338-364.
 3) 김무조, <불說話攷(1)-빛사상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신화의 원형』(서울 正音文化社, 1988), pp.340-359.
 4)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서울 길벗, 1994), pp.53-64.

다. 그리고 독립된 불기원 신화소에 대하여 각 단락별로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김헌선교수의 이러한 연구를 불기원 신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창세신화에서 불기원 신화소를 독립시킨 결과는 불기원 신화 연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불신의 숭배, 불의 상징성, 불기원 신화 등에 대한 연구들은 집적된 연구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각 부분에 대한 端初적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이들 상호 간의 친밀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개별연구의 집적된 결과를 토대로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집적된 결과물 부재라는 한계를 전제로하고, 한국 불기원 신화에 대한 보다 예비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한국 불기원 신화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 양상은 어떠한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서사문맥 속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잔존시키고 있는가를 밝힌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하여 불기원 신화의 서사적 실현형태를 분석하고 그것의 주제적 층위를 밝힌다. 그 결과를 世界 불기원 신화의 서사형태와 비교고찰하여 한국 불기원 신화의 보편과 특수성의 일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한국 불기원 신화가 반영하고 있는 문화사적 전개양상을 살핀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한국 불기원 신화들의 세부사실들과 일치한다면, 이것은 한국 불기원 신화 연구에 의의있는 부가가 될 것으로 본다.

II. 존재양상

1. 창세신화와 불의 기원

불기원 신화 중 일부는 창세신화를 구성하는 신화소들 중 그 하나로 존재한다. 즉 단일 신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상위의 창세신화를

구성하는 신화소로 존재한다. 이들 불기원 신화는 서사문맥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먼저 무속신화 중 창세신화가 그것이다.

자료 1.

미륵님 시절에는 불이 없어 生食을 하였는데, 불도 안 때고 곡식을 생으로 먹었기 때문에, 미륵님은 섬들이 말들이로 식사를 하였다. 그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미륵님은 물의 근본과 불의 근본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풀메뚜기를 잡아다 형틀에 올려놓고 무르팍을 때리면서, 물의 근본과 불의 근본을 아느냐고 물었다. 풀메뚜기가 대답하기를,

"밤이면 이슬받아 먹고 낮이면 햇발받아 먹고 사는 짐승이 어찌 알겠습니까? 나보다 한 번 더 먼저 본 풀개구리를 불러 물어 보시오."

미륵님이 풀개구리를 잡아다가 무르팍을 때리며 물으니, 풀개구리 대답하기를,

"밤이면 이슬받아 먹고 낮이면 햇발받아 먹고 사는 짐승이 어찌 알겠습니까? 나보다 두번 세 번 먼저 본 새앙쥐를 잡아다 물어 보시오."

미륵님이 새앙쥐를 잡아다가 무르팍을 때리며 물으니, 새앙쥐가 하는 말이,

"내게 무슨 공을 세워 주시렵니까?"

하여 미륵님이,

"너로 하여금 천하의 뒤주를 차지하게 하리라."

고 하니 그제서야 새앙쥐가 대답하기를,

"금덩산에 들어가서 한 쪽에 차들을 들고 한 쪽엔 시우쇠를 들고 툭툭 치니 불이 일어났고요,

소하산에 들어가니 샘물이 솔솔 나오는 물의 근본이 있었지요."

미륵님이 물과 불의 근본을 이렇게하여 알은 후에 인간을 점지하였다.⁵⁾

5) 金泰坤, 『韓國의 巫俗神話』(서울 집문당, 1985), pp.15-16.

자료1은 김쌍돌이 구연 창세신화를 구성하는 신화소들 중 그 하나이다. 김쌍돌이 구연 창세신화는 천지개벽과 천지창조, 일월의 조정과 갖가지 신앙, 미륵님의 거인적 면모, 불과 물의 근원, 인간의 창조, 인세차지 경쟁, 생식에서 화식으로의 전환, 화식의 거절과 영생의 획득이라는 신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⁶⁾ 인용된 자료는 물과 불의 근본을 알리는 신화소에 해당된다. 그 내용은 미륵님 시절에 불이 없어 생식을 하였으므로 생쥐를 통하여 불을 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륵님이 인간을 점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진행은 자체 완결된 서사구조를 자닌다는 점에서 불기원 신화로 독립시킬 수 있다.

이것은 창세신화가 불의 기원문제를 서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불기원 신화가 단일신화로서 독립되지 않고, 보다 상위의 창세신화 속에 포함되어 이를 구성하는 하나의 신화소로서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동일한 서사 문맥 속에서 존재하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료 2.

그 적에야 미력님이 할 일 없이 해 달 잡아 도롱 소매에다 가두시고,水火잡아 지하궁에 가두시고, 하늘로서 승천을 했소. 그럴 적에 미력님에 얼굴일랑 해와 달이 이상가고, 미력님에 귀는 가서 북두칠성 이상가고, 미력님에 눈은 가서 밝은 셋별 이상가고, 미력님에 코는 가서 삼태성에 이상가고, 미력님에 입은 가서 모에 담을 이상가고, 미력님에 배는 가서 청하늘에 이상가고, 미력님에 手足일랑 이상가고, 미력님에 일신일랑 지구뎡이 이상간다.

그적에야 석가열이 이 世上에 世上配布를 나오실 적에 四月이라 初 八日날 세상 배포를 나오신다. 캄캄하고 어두워서 어퍼디며 자빠디면 하늘 녁을 내려가서 채도사를 불러 놓고 묻는 말이,

6) 김현선, 1994 앞의 책, pp. 296-299.

"여보세요 채도사요. 해 달잡아 어디다 뒀나. 水火잡아 어디다 뒀나."

채도사가 하는 말씀,

"미력님이 하신 일을 나는 가서 모릅니다."

석가 열이 할 수가 없어 매를 들어 채도사를 치는 구나. 채도사가 매에 못 이겨 개는 직고하였더라. 그적에야 도롱 소매서 해 달잡아내어 놓니 이 세계가 밝았도다. 日月일랑 明朗을 하여 낮이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뜬다. 그적에야 물 한 동에 길어 내어 서인님이 다기수요. 만 인간에 생명수를 돌렸더라. 불 한 토막을 잡아 내어 서인님에 고양이 불에 만인간에 火食불로 돌렸더라.⁷⁾

자료2는 창세신화를 구성하는 여러 신화소들 중 그 하나이다. 그리고 숨겨진 해와 달, 그리고 물과 불을 찾는 물과 불의 근본을 알리는 신화소에 해당된다. 이것은 미륵이 숨겨 놓은 불을 석가열이 다시 찾아 인간 세상에 돌려준다는 완결된 서사진행을 보인다.

자료 3.

집당에 당진하였는데 인간 사람이 불 없이 어찌사오, 물없이 어찌 사오, 내미없이 어찌살가. 불과 물이 있어야 한다. 생귀를 생명 삼재(세 번) 드러치니,

"풀난디(草露)를 받아먹고, 덩불 속에 엮드레 있는 짐승을 무삼일로 생명 삼재 드레치오?"

"불에 근본을 내라."

"쥐먹는 건 가리젠읍니다."

"천태산 내막에 들어가서, 차돌을 놓고 수리 칭을 때 놓고 검은 산에 쇠에 쇠끝을 놓고 삼 세 번을 드레 치며(면) 불에 근본이 나옵니다."⁸⁾

7) 김현선, 1994 앞의 책, pp.296-299.

8) 김현선, 1994 앞의 책, pp.259-260.

자료3 또한 창세신화를 구성하는 여러 신화소들 중 그 하나이다. 그리고 불의 근본을 알리는 신화소에 해당된다. 서인님이 생쥐를 통해 불을 켜는 방법을 얻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으며, 완결된 서사진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1과 자료2와 함께 독립된 하나의 불 기원신화로 본다.

다음으로 神誌의 〈三一神譜〉世界訓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자료 4.

神이 勅日世界使者하사 轄七百世界하시니 雨地自大나 一丸世界니라 中火震盪하야 海幻陸遷하야 乃成見象하니라. 神이 呵氣包底하시고 照日色熱하시니 行藹化游栽의 物이 繁殖하니라.”⁹⁾

자료4는 한얼님께서 우주만유를 창조하실 때, 속불을 울려 터뜨리시고 바다와 육지를 마련하신 다음, 뜨거운 햇빛을 쏘이시어 모든 동식물과 인류를 만들어 번식시킨 創世의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불을 최초로 획득하게 되는 과정은 나오지 않으나 창세의 과정에서 中火가 등장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곧 인간세계에 최초로 불이 등장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창세과정에서 불이 인간세계에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경위를 보여준다. 〈三會經〉三神에서는 불이 최초로 생성되는 경과를 보여준다.

자료 5.

大哉라 神之道也여 卽一卽三하야 體之에 而達無上하시며 用之에 而窮無倪하시니라 斯道一幻에 六大가 成象하니 曰 空과 熱과 震과 濕과 寒과 固라 空爲天하고 熱爲火하고 震爲電하고 濕爲水하고 寒爲風하고 固爲地니라.¹⁰⁾

9) 『한국명저대전집』(서울 대양서적, 1973), p.40.

10) 앞의 책, p. 73.

자료5는 최초 불의 생성을 말한다. 큰 한얼님의 도가 한 번 변하여 여섯 가지 큰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 불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이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불이 최초로 생성된 과정을 보여 준다.

이상 다섯가지 자료 중 자료1과 2와 3은 모두 서사형식을 갖춘 불기원 이야기로서 존재하며, 자료 4와 5는 이야기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불이 최초로 생성된 과정을 말해준다. 그러나 자료 모두는 창세의 과정을 이루는 한 요소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 불기원 신화가 무엇보다 먼저 창세신화의 서사문맥 속에 존재하며, 또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잔존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우주적 홍수와 불의 기원

신화의 세계에서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창조 이후 우주적 홍수가 뒤따른다. 이 때 불의 기원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이 경우 불을 받기/훔쳐 오기, 불을 켜는 방법을 받아 오기/훔쳐 오기 등등의 최초 불이 없던 상황에서의 불기원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¹¹⁾

그러나 우리의 홍수신화에서는 불기원 문제가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홍수 이후에도 불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용된 자료를 통해 이를 살핀다.

자료 6.

옛날 이 세상에는 큰물이 져서 세계는 전혀 바다로 화하고 한 사람의 생존한 자도 없게 되었다. 그 때에 어떤 남매 두 사람이 겨우 살게 되어 백두산 같이 높은 산의 상상봉에 漂着하였다. 물이 다 걷힌 뒤에 남매는

11) J.G.프레이저의 『불기원신화』에서는 대홍수 이후 일어나는 불기원 문제를 다룬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대홍수 이후 불의 기원이 이 4가지 가능성 내에서 문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상에 나와 보았으나 인적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었다. 만일 그대로 있다가는 사람의 씨가 끊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兄妹 間에 결혼을 할 수도 없었다. 얼마 동안을 생각하다 못하여 형매가 각각 마주 서 있는 두 峰 위에 올라가서 계집아이는 암망(구멍 뚫어진 편이 땃돌)을 굴려 내리고 사나이는 수망(下部石臼)을 굴려 내렸다.(혹은 마代신 靑술개 비에 불을 질렀다고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하느님에게 祈禱를 하였다. 암망과 수망은 이상하게도 산골 밑에서 마치 사람이 일부터 포개 놓은 것 같이 합하였다.(혹은 청송엽에서 일어나는 煙氣가 空中에서 이상하게도 습었다고도 한다.) 형매는 여기서 하느님의 의사를 짐작하고 결혼하기로 서로 결심하였다. 사람의 씨는 이 형매의 결혼으로 인하여 계속하게 되었다. 지금 많은 인류의 조상은 실로 옛날의 그 두 남매이라고 한다.¹²⁾

(1923年 8月 11日 咸興府 何東里 金浩榮氏 談)

자료6의 내용에서는 홍수 이후 兄妹 만이 살아남자 그들은 후손을 잇기 위해 결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형매 간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하늘의 뜻을 묻기로 했다. 이때 그들은 불을 사용해 묻는다. 그러나 불을 얻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우주적 홍수 이후에도 불이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불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우리의 신화 세계에서는 홍수 신화와 불기원 신화를 병행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주적 홍수라는 크나큰 재변이 인간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반면 문화의 지속성 여부와는 독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우주적 홍수신화의 모습에서 인간의 생존여부와 문화 즉 불의 지속성 여부를 분리시켜 생각한 고대 우리 조상들의 신화적 사유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12)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서울 을유문화사, 1982), p.8.

3. 단일신화적 불의 기원

보다 상위의 신화에 내재된 신화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단일한 신화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자료가 보인다. 아래는 황패강 교수가 예로든 자료이다.¹³⁾

자료 7.

추운 북쪽 나라에서 얼어 붙은 불을 꺾어서 나귀 잔등에 싣고 고향으로 오는 도중 그만 따뜻한 날씨에 얼어붙었던 불이 녹아 나귀 잔등이 탔다.

황패강교수는 인용된 설화를 한국 전래 설화로 명명하고, 이야기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황패강교수가 한국 전래 설화로 소개한 이야기는 불 획득의 서사진행을 요약적으로나마 보여준다. 자료7과 유사한 불의 획득 이야기가 중국 『路史』의 기록에서 보인다.

遂明國에서는 계절과 밤낮을 구별할 수 없었다. 불나무가 있어 遂木이라 이름하였는데, 만경이나 뺨치었다. 새가 있어 燭라 하였는데, 나무를 쪼으면 환하게 불꽃이 일어나 성인이 감동하였다.

그래서 그 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붙였으니 燧人이라 불렀다.¹⁴⁾

이 자료를 자료7과 비교하면, 두 자료는 採火의 과정이 자연현상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체자는 다만 그것을 옮겨다가 놓는 정도의 역할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보다 원시적인 불의 기원을 제시한다고 하겠다.¹⁵⁾

13) 황패강, 『한국서사문학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2), p.350.

14) 『路史』, 發揮一注

遂明國不識四時晝夜 有火樹名遂木 屈盤萬頃, 有鳥名燭啄樹則燦然火出, 聖人惑焉, 因取其枝以鑽火, 號遂人.

15) 빈미정, 〈중국고대기원신화의 분석적 연구〉(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 114~117.

특히 자료7은 우리의 환경적 지리적 조건에 의한 불의 이동으로 파악된다. 추위의 극복이라는 환경적 인간 본능적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불이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과정을 나타내 주는 듯 하다. 다소 파편화된 전설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이 이야기는 선사시대 불 이동 경로의 흔적을 반영한 단일 불기원 신화의 잔영으로 보인다. 다음은 불의 발명과 관련한 단일 불기원 신화이다.

자료 8.

우리 신화에서는 단군의 셋째 아들 부소(夫蘇)가 불을 발명하였다. 세상에 맹수와 독충이 생기고 돌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자 부소가 부싯돌을 만들어 불을 일으키고, 이 불로 숲을 태워 해로운 것들을 없애는 한편, 돌림병도 물리쳤다는 것이다. 부싯돌이라는 말은 부소석(夫蘇石)이 변한 이름이라고 전한다.¹⁶⁾

내용이 통일되고 완결된 이야기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자료를 이야기 그 자체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불이 없었던 상황을, 그리고 문화영웅 부소가 부싯돌의 마찰에 의해 불을 켜는 방법을 인간에게 주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시혜의 결과 인간들은 유익한 문화의利器로서 불을 켜는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자료8과 유사한 이야기는 중국의 『釋史』와 『太平御覽』에서 발견된다.

북히는 백우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으켰다.¹⁷⁾

황제는 나무를 송곳으로 뚫어 불을 일으켜 날것을 구워서 비린내를 없앴으

16)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韓國文化상징사전』(서울 東亞出版社, 1992), pp.371-372.

17) 『釋史』卷三, 引〈河圖挺輔佐〉

伏羲禪於伯牛, 鑽木作火.

니, 백성들이 이를 먹어도 장과 위에 탈이 없었다.¹⁸⁾

문화영웅이 발명한 불을 켜는 방법은 자료8과 중국의 경우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소가 중국의 자료에서는 복희와 황제가 각각 불을 켜는 방법을 발명하였다고 함으로써, 문화영웅이 직접 불을 켜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여 인간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공통된 서사진행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용된 자료8은 신화적 관심이 불을 발명한 주체자에게 직접 미치어,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고도로 합리화되고 요약된 단일한 불기원 신화의 잔영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자료 8편을 통하여 한국 불기원 신화의 존재와 그것의 존재양상을 확인했다. 먼저 이들 불기원 신화들이 창세신화를 구성하는 신화소로서, 그리고 단일 불기원 신화로서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우주적 홍수에 있어서 불의 기원 문제가 인간 생존의 문제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우주적 홍수에 있어서 불의 기원이 주요하게 문제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II. 서사구조와 주제의 층위

1. 불의 획득

불의 획득은 불을 직접 얻어 오거나 훔쳐 오는 경우이다. 이는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과는 구별되는 불기원이다. 일반적으로 불의 획득과 관련한 이야기의 순차적 전개는 불이 없는 상태에서 불을 얻기/훔치기, 그리고 인간에게 주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로는 프로메테우스가 신으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를 한

18) 『太平御覽』卷七十九, 〈皇王部四〉
黃帝鑿燧生火, 以熟暈臊, 民食之無腸胃之病.

가지로 예로 들 수 있다.

불을 획득하는 자료는 앞 장에서 제시된 자료2, 자료4, 자료5, 자료7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불 획득 신화의 서사구조를 분석한다.

I. 최초 인간세상에는 불이 없다. (불획득의 가능성)

- a. 미륵님이 해 달 잡아 도롱 소매에다 가두고, 水火잡아 지하궁에 가두고 하늘로 승천했다. 석가열이 四月初八日날 이 세상에 배포를 나온다. 캄캄하고 어두워서 어퍼지며 자빠진다.(자료2)
- b. 한얼님께서는 우주만유를 창조하시다.(자료4)
- c. 큰 한얼님의 도는 하나이자 셋이니 주체로는 더없는 위에 사무치며, 쓰임으로는 더 없는 끝에까지 다한다.(자료5)

II. 주체자는 불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한다.(불획득의 시도)

- a-1. 석가열은 불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협상의 가능성)
- 2. 석가열이 채도사를 불잡아 매를 들어 치며 불이 있는 곳을 묻는다(협상의 시도)
- 3. 매에 못이겨 채도사가 석가열의 물음에 대답한다.(성공한 협상)
- b. 한얼님께서 속불(中火)을 울려 터뜨리시고 바다와 육지를 마련하신다.
- c. 이 道가 한 번 변하여 여섯 가지 큰 형상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이다.
- d. 추운 북쪽 나라에서 얼어 붙은 불을 꺾어서 나귀 잔등에 싣고 고향으로 온다.(자료7)

III. 주체자는 불을 획득하고, 인간세상은 불을 얻는다. (획득된 불)

- a. 미륵이 숨겨놓은 불 한 토막을 석가열이 다시 찾아 만인간에 火食불로 돌린다.

- b. (속불을 올려 터뜨렸다함은 곧 인간세상에 불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 c. (도가 변하여 불이 생성되었다함은 곧 인간세상에 불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 d. 따뜻한 날씨에 얼어붙었던 불이 녹아 나귀 잔등이 탔다.

이것은 한국 불기원 신화 중 불 획득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불 획득의 가능성〉 - 〈불 획득의 시도〉 - 〈획득된 불〉의 서사구조를 밝혔다. 그러나 자료2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사구조들은 세부지선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불기원 신화들이 후대 전승에서 고도로 요약된 형태로 남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합리화나 고등 종교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화적 상상의 허구적 형태가 사멸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료4, 자료5는 고등의 종교화 과정을 거쳐서 잔존하게 된 자료이다. 자료7은 합리화의 과정을 거쳐 전설적 요소를 지닌채 잔존하게 된 자료이다. 한편 자료2는 세부지선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협상의 가능성〉 - 〈협상의 시도〉 - 〈성공한 협상〉으로 이루어진 서사구조이다. 이것은 후대전승에서 종교화의 과정이나 합리화의 과정을 비교적 거치지 않고 온전하게 잔존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획득의 서사구조는 두 가지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화나 합리화의 과정을 거친 자료의 경우 거의 세부지선을 포함하지 않는데, 그것은 〈불 획득의 가능성〉 - 〈불 획득의 시도〉 - 〈획득된 불〉이라는 서사구조로 실현된다. 종교화나 합리화의 과정을 비교적 거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세부지선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불 획득의 가능성〉 - 〈불 획득의 시도〉 - 〈협상의 가능성〉 - 〈협상의 시도〉 - 〈성공한 협상〉 - 〈획득된 불〉이라는 서사구조로 실현된다.

이 구조는 문명의利器인 불, 신성한 주체자, 그리고 인간 등 세 가지 서사요소에 의해서 실현된다. 아래의 그림은 이 세 가지 요소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 준다.



불과 인간은 그 고유의 성격이 허구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 주체자는 석가열, 한얼님, 道, 문화영웅 등으로 신성화 되어 있다. 그림은 먼저 불이 최초 인간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지 않음을 나타내 준다. 다음으로 주체자의 매개에 의해서만이 불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음을 나타내 준다. 즉 신성한 주체자인 석가열, 한얼님, 道, 문화영웅 등의 개입에 의해서만이 불은 인간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불 때 그림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형성할 때, 최초 인간의 불 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유형의 서사구조는 인간과 자연현상으로서의 불 사이에 신성한 주체자를 개입시킴으로써 상상과 허구의 불 획득 散文을 산출해 낸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서의 불, 인간, 신성한 주체자 이 삼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최초 불 획득과 관련된 인간문화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화적 사유형태로 볼 수 있다.

2.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은 이것을 얻어 오거나 훔쳐 오는 경우이다. 이는 불의 획득과는 구별되는 불기원의 존재 양상이다. 불을 켜는 방법을 획득하는 자료에는 자료1, 자료3, 자료8 등이 있다.

먼저 불을 켜는 방법 획득 신화의 서사구조를 분석한다.

I. 최초 인간세상에는 불을 켜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가능성)

- a. 미륵님 시절에는 불이 없어 생식을 하였다. 그래서 미륵님은 불의 근본을 찾기로 결심한다.(자료1)
- b. 서인님 시절에 불이 없었다.(자료3)
- c. 세상에 맹수와 독충이 생기고 돌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자료8)

II. 주체자는 불을 켜는 방법을 획득하려고 시도한다.(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시도)

- a-1. 미륵님은 불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협상의 가능성)
 - 2. 미륵님이 새앙귀를 잡아놓고 때린다.(협상의 시도)
새앙귀는 천하 뒤주를 협상조건으로 제시한다.
 - 3. ‘금당산에 들어가서 한 쪽에 차들을 들고 한 쪽엔 시우쇠를 들고 툭툭치니 불이 일어났음’을 알린다.(성공한 협상)
- b.-1. 서인님은 불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협상의 가능성)
 - 2. 서인님은 생쥐를 붙잡아 놓고 생명 세 번 친다.(협상의 시도)
생쥐는 먹을 것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한다.
 - 3. ‘천태산 내막에 들어가서, 차들을 놓고 수리 칠을 떼 놓고 검은 산에 쇠에 쇠끝을 놓고 삼 세 번을 치면 불에 근본이 나옵니다’라고 대답한다.(성공한 협상)
- c. 우리 신화에서는 단군의 셋째 아들 부소(夫蘇)가 불을 발명한다.
부소가 부싯돌을 만들어 불을 일으킨다.

III. 주체자는 불을 켜는 방법을 획득하고, 인간세상은 불을 켜는 방법을 얻는다. (획득된 불을 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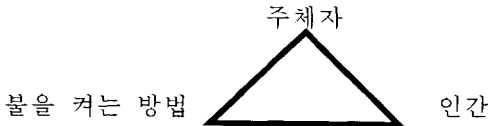
- a. 미륵님이 불의 근본을 안 후에 인간을 점지하였다.
- b. (불의 근본을 알았다함은 곧 인간세상에 불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 c. 이 불로 숲을 태워 해로운 것들을 없애는 한편 돌림병도 물리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불기원 신화 중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과 관련한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가능성〉 -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시도〉 - 〈획득된 불을 켜는 방법〉의 서사구조를 밝혔다. 그러나 자료8을 제외한 자료1과 자료3의 서사구조들은 세부지선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자료8이 후대전승에서 역사적 합리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으로 본다. 이것은 역사적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화적 상상이 낡은 허구적 형태가 사멸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료1과 자료3은 세부지선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협상의 가능성〉 - 〈협상의 시도〉 - 〈성공한 협상〉으로 이루어진 서사구조이다. 이것은 후대전승에서 고등 종교화의 과정이나 역사적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온전하게 잔존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서사구조는 두 가지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합리화의 과정을 거친 자료의 경우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가능성〉 -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시도〉 - 〈획득된 불을 켜는 방법〉의 서사구조로 실현된다. 고등의 종교화나 역사적 합리화의 과정을 비교적 거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세부지선을 포함하는데,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가능성〉 -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시도〉 - 〈협상의 가능성〉 - 〈협상의 시도〉 - 〈성공한 협상〉 - 〈획득된 불을 켜는 방법〉의 서사구조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문명의利器인 불을 켜는 방법, 신성한 주체자, 그리고 인간 등 세 가지 서사요소에 의해서 실현된다. 아래의 그림은 이 세 가지 요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준다.



불을 켜는 방법과 인간은 그 고유의 성격이 허구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불을 켜는 방법은 오늘날의 과학적 합리적 사고 마저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주체자는 미륵님, 서인님, 부소 등으로 신성화 되어 있다. 그림은 먼저 불을 켜는 방법이 최초 인간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지 않음을 나타내 준다. 다음으로 주체자의 매개에 의해서만이 불을 켜는 방법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음을 나타내 준다. 즉 신성한 주체자인 미륵님, 서인님, 부소 등의 개입에 의해서만이 불을 켜는 방법이 인간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볼 때 그림은 이 세가지의 요소가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형성 할 때 최초 인간의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유형의 서사구조는 인간과 과학적 현상으로서의 불을 켜는 방법 사이에 신성한 주체자를 개입시킴으로써 상상과 허구의 불 켜는 방법 획득의 散文을 산출해 낸다. 이것은 과학적현상으로서의 불을 켜는 방법, 인간, 신성한 주체자 이 삼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최초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과 관련된 인간문화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화적 사유형태로 볼 수 있다.

3. 구조 층위의 보편과 특수

불기원 신화는 우리의 경우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술하고 분석하면 그 존재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세계 각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민족에 따라서 더욱이 한 민족 내의 집단에 따라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J.G.프레이저의 『불기원 신화』(Myth of Origin of Fire)¹⁹⁾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15개 지역에서 채록된 300여편의 불기원 신화를 수록하고 있다. 이 책

19) J.G.프레이저, 『Myth of Origin of Fire』(New York Hacker Art Books, 1974)

에 수록된 이야기들을 그것의 순차적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가. 불 획득의 순차적 구성

I. 불 획득의 가능성

1. 날것의 극복 시도 2. 추위의 극복 시도 3. 기타

II. 불 획득의 시도

1. 소유의 주체: 1.1. 신 1.2. 인간(여성) 1.3. 동물
2. 소유의 방법: 2.1. 나무 속 2.2. 손가락 2.3. 다리 사이 2.4. 동물의 부위 2.5. 기타
3. 소유의 장소: 3.1. 천상 3.2. 지상 3.3. 지하
4. 획득의 주체: 4.1. 신 4.2. 인간 4.3. 동물
5. 획득의 방법: 5.1. 얻기 5.2. 훔치기

III. 획득된 불

1. 최후의 사해자: 인간
2. 소유양상: 2.1. 개인 2.2. 집단

IV. 획득된 불의 재상실(가령 우주적 홍수가 주어질 경우)

V.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

나.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

I.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가능성

1. 날것의 극복 시도 2. 추위의 극복 시도 3. 기타

II.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시도

1. 소유의 주체: 1.1. 신 1.2. 인간(여성) 1.3. 동물

- 2. 소유의 방법: 2.1. 나무의 마찰 2.2. 돌의 마찰 2.3. 기타
- 3. 소유의 장소: 3.1. 천상 3.2. 지상 3.3. 지하
- 4. 획득의 주체: 4.1. 신 4.2. 인간 4.3. 동물
- 5. 획득의 방법: 5.1. 얻기 5.2. 훔치기

III. 획득된 불켜는 방법

- 1. 최후의 시혜자: 인간
- 2. 소유양상: 2.1. 개인 2.2. 집단

다. 불의 획득에서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으로의 이행

불 획득과정+획득된 불의 재상실+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과정.

이상 세계 불기원 신화의 서사 진행과정을 살폈다. 이것을 한국 불기원 신화의 순차적 전개양상과 대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불기원 신화의 보편과 특수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 본다.

대비결과 먼저 공통된 요소로 한국 불기원 신화의 서사구조와 세계의 불기원 신화의 서사구조가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의 불 획득 신화의 서사구조는 〈불 획득의 가능성〉 - 〈불 획득의 시도〉 - 〈획득된 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획득된 불〉의 단락소 다음에 이어지는 〈획득된 불의 재상실〉은 자의적으로 나타난다. 다음 세계의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 신화의 서사구조는 〈불을 켜는 : 방법 획득의 가능성〉 -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시도〉 - 〈획득된 불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유형의 서사구조를 한국 불기원 신화의 서사구조와 비교할 경우 상호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서사구조의 현시된 요소들과 세부지선들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문화적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차이점이다. 먼저 불 획득의 신화에서 획득된 불의 재상실 (가령 우주적 홍수가 주어질 경우)은 우리의 경우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불의 획득에서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으로 문화 진화론적 이행은 한국 불기원 신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主線의 주제와 내용을 강화하고 더욱 풍부하게 하는 細部枝線들의 존재양상은 문화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닌다. 한국 불기원 신화에 나타나는 〈협상의 가능성〉 - 〈협상의 시도〉 - 〈성공한 협상〉의 세부지선은 사건의 주선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

세부 구성요소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현격하게 나타난다. 불 소유의 주체, 소유의 방법, 소유의 장소, 불 획득의 주체, 획득의 방법 등에 있어서의 차이가 그것이다. 특히 우리의 불 획득 신화는 주요한 이야기 구성요소로서 불 소유의 주체, 소유의 방법, 소유의 장소 등을 문제 삼지 않는다. 반면 획득의 주체와 획득 방법에 대해서는 세계 불기원 신화와 동일하게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관심이 주어진다. 또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 신화는 주요한 이야기 구성요소로서 불 켜는 방법의 소유 주체, 소유 장소 등을 문제삼지 않는다. 반면 불 소유의 방법, 획득의 주체, 획득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관심이 주어진다. 따라서 한국 불기원 신화의 주요한 관심이 불 획득의 주체와 불 획득의 방법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허구적 상상적 요소들인 불 소유 주체, 소유 방법, 소유 장소 등이 고등 종교화 및 역사적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 및 퇴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 불기원 신화의 서사구조가 한국의 불기원 신화의 서사구조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화와 지역적 조건과는 무관하게 세계 불기원 신화의 보편적 서사구조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면 문화적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 구성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소유의 주체, 소유의 방법, 소유의 장소, 획득의 주체, 획득의 방법, 세부지선 등에서의 차이가 그것이다. 이들은 세계 불기원 신화의 문화적 지리적 조건에 따른 특수성을 보여준다.

IV. 진화론적 문화사 반영형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바와 같이 불과 관련하여 인간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 세 단계의 과정은 불이 없던 시대, 불 획득 시대,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 시대이다. 이 세 단계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우리 원시조상들이 거쳐왔던 文化 진화과정을 의미한다.

불기원 신화는 인간들이 그들의 삶과 사회의 기원에 대해서 내성적으로 살피기 시작할 때, 이때 제기된 문제를 사유의 상상이라는 차원에서 풀기 위해 창출한 추측들이자, 그들의 최초 노력들로 이해된다. 이 때 이러한 그들의 추측은 과학적 사유의 표현이며, 문화진화에 대한 신성한 역사로 이해된다. 과장되고 상상된 허구적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기원 신화는 문화 진화과정에 대한 실제적 사실들을 포함한다. 한국 불기원 신화가 정확히 문화 진화의 연속된 세 시대와 상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우리 원시조상들의 과학적 사유의 표현이자, 문화진화에 대한 신성한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불기원 신화를 문화의 세 단계 진화과정과 상응해서 살핌으로, 아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의 문화 즉 불 기원의 전개과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문화의 자생적 생성과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 古代 원시조상들이 불의 사용을 완전히 몰랐던 한 시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원시조상들은 추위, 음식의 요리 등등에 있어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불기원 신화 속에서 확인된다.

세상에 맹수와 독충이 생기고 돌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자 부소가 부싯돌을 만들어 불을 일으키고, 이 불로 숲을 태워 해로운 것들을 없애는 한편 돌림병도 물리쳤다는 것이다.(자료 8)

미륵님 시절에는 불이없어 生食을 하였는데, 불도 안 때고 곡식을 생으

로 먹었기 때문에, 미륵님은 섬들이 말들이로 식사를 하였다. 그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미륵님은 물의 근본과 불의 근본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자료 1)

집당에 당진하였는데 인간 사람이 불없이 어찌사오, 물없이 어찌사오, 내미없이 어찌살가. 불과 물이 있어야 한다. (자료 3)

자료8에서는 세상에 불이 없어 맹수와 독충이 생기고, 돌림병이 퍼져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자료1에서는 미륵님 시절에는 불이 없어 生食을 하였는데, 불도 안 때고 곡식을 생으로 먹었다고 한다. 자료3에서는 불없이 살 수 없음을 말한다. 여기서 맹수, 독충, 돌림병, 生食 등은 불이 없던 시대에 겪었던 원시조상들의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신화적 자료를 통해 볼 때, 원시적 상태에 있었던 우리 고대 조상들은 불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채 헤아릴 수 없이 긴 한 시기를 살아갔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시기의 삶의 모습들이 신화적 상상 속에 반영되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맹수, 독충, 돌림병, 생식 등은 환경 조건과 생리적 본능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불의 기원문제가 어떤 특정지역 특정 집단으로 제한되지 않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이 없던 시대는 불의 사용시대로 이어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시대이다. 그러면 불이 없던 시대에 원시조상들은 어떻게 불을 얻어 그들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신화는 다음과 같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추운 북쪽 나라에서 얼어 붙은 불을 꺾어서 나귀 잔 등에 싣고 고향으로 오는 도중 (자료7)

"여보세요 채도사요, 해 달 잡아 어디다 뒀나, 水火 잡아 어디다 뒀나."

채도사 하는 말씀,

"미력님이 하신 일을 나는 가서 모릅니다."

석가열이 할 수 없어 매를 들어 채도사를 치는구나. 채도사가 매에 못이겨 개는 직고하였더라. (자료2)

神이 勅日世界使者하사 轄七百世界하시니 兩地自大나 一丸世界니라 中火震盪하야.(자료4)

斯道一幻에 六大가 成象하니 曰 空과 熱과 震과 濕과 寒과 固라 空爲天하고 熱爲火(자료5)

자료7에서는 추운 북쪽 나라에서 불을 나귀 잔등에 실어서 얻어온다. 자료2에서는 인세차지 경쟁에서 진 미륵이 불을 지하궁에 가두어 두고 승천을 한 후 석가열이 이 세상에 와서 그것을 가져온다. 자료4와 자료5에서는 한얼님이 속불(中火)을 터트린다고든가, 道가 일변하여 불이 생성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불을 지하궁, 추운 북쪽나라 등에 가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이야기한다. 혹은 中火로 존재한다고든가, 道의 원리에 잠동해 있다가 인간의 삶 속으로 그 모습을 드러냄을 이야기 한다.

신화에서 원시조상들이 얻은 불은 미륵의 불이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에게 전해 준 중개자는 석가열이다. 또한 원시조상들이 얻은 불은 한얼님, 道가 생성한 불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불은 神이 준 불이요, 하늘이 보낸 불이다. 그래서 신성한 것이기도 하다. 불을 얻어 사용하던 시대에 대한 이러한 우리 원시조상들의 사유는 후대 전승설화에도 지속되어 나타난다.

이 집에서는 五代나 至誠으로 불 간수를 잘해서 꺼지지 않고 이어져왔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해서 그만 불을 이어가지 안해도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童參을 童子로 변하게 해서 이 집에 보내서 불을 헤치고 보게

했다.²⁰⁾

하늘이 감동해서 동삼을 동자로 변하게 해서 이 집에 보냈다는 발상은 그것의 근저에 불은 神이 준 불이요, 곧 하늘이 준 불이라는 思惟가 내포되어있음을 보여준다.

불을 하늘이 보낸 것이라 思惟한 결과 우리 신화에는 불의 우연한 발견, 불의 발생과 관련하여 자연세계를 내밀하게 관찰하는 모습 등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태양, 달, 별로부터 불의 유래, 화산, 바다, 지하와 같은 자연조건으로부터 불의 유래, 그리고 중개자로서 동물(그들의 힘력과 릴레이)들의 활약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허구적 산문은 우리 원시조상들이 그들의 삶 속으로 최초로 불을 끌어들여 문화의 이기로 사용하게 된 문화 진화의 단계를 반영한다.

불을 얻어 사용하던 시대는 불을 켜는 방법을 발견한 시대로 이어진다. 그러면 불을 얻어서 사용하던 시대에 조상들은 어떻게 불을 켜는 방법을 얻을 수 있었을까? 불기원 신화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불을 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한다.

부소가 부싯돌을 만들어 불을 일으키고 (자료8)

생양쥐가 대답하기를,

"금덩산에 들어가서 한 쪽에 차돌을 들고 한 쪽엔 시우쇠를 들고 툭툭 치니 불이 일어났고요,

20)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5 (서울 평민사, 1989), pp.163-164.

…… (자료1)

생쥐를 생명 삼재(세번) 드러치니,

(중 략)

"천태산 내막에 들어가서, 차들을 놓고 수리 칠을 때 놓고 검은 산에 쇠에 쇠끝을 놓고 삼세번을 드레 치며(면) 불에 근본이 나옵니다" (자료3)

자료8에서는 단군의 셋째 아들 부소가 부싯돌을 만들어 불을 일으켰다고 한다. 자료1에서는 미륵이 생양쥐에게 물으니 차돌과 시우쇠를 쳐서 불을 일으켰다고 한다. 자료3에서는 서인님이 생쥐에게 물으니 차돌을 놓고 수리칠을 때 놓고, 검은 산에 쇠에 쇠끝을 놓고 삼 세번을 쳐서 불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신화에는 일관되게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돌이나 쇠를 부딪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¹⁾

그러나 사실상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의 조상들은 지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거친 돌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그들을 부딪쳤을 것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돌(쇠)의 마찰에 의해 불을 얻는 방법은 세계 여러 지역마다 자생적으로 발견되었음에 틀림없다. 이와같이 우리 원시조상들도 독자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발견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러한 허구적 산문은 궁극적으로 우리 원시조상들이 그들의 삶 속으로 최초로 불을 켜는 방법을 끌어들이며 문화의 이기로 사용하게 된 문화진화의 단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의 불기원 신화는 불이 없던 상태에서 불을 획득하는 단계

21) 한편 집안 사신무덤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선묘에 의해서 불신이 발화봉을 들고 불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나무의 마찰에 의해 불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불을 일으키는 방법은 2가지가 공존했던 것이다. 신화세계에서는 돌이나 쇠의 마찰에 의해서, 繪畫에서는 나무의 마찰에 의해서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각각 형상화했던 것이다.

로, 그리고 불을 켜는 방법을 획득하는 단계로 이행해왔던 문화 진화과정을 반영한다. 즉 진화론적 문화사를 반영한다. 따라서 한국 불기원 신화는 일면 우리 원시조상들의 과학적 사유의 표현이자, 그들이 영위한 문화에 대한 신성한 역사로 이해된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집적된 결과물 부재라는 한계를 전제로하고, 한국 불기원 신화에 대한 보다 예비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한국 불기원 신화가 어떠한 서사문맥 속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잔존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이들 불기원 신화들이 창세신화를 구성하는 신화소로서 존재하면서도, 단일 불기원 신화로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우주적 홍수 신화에서 불의 기원이 문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에서 인간의 생존과 문화 즉 불의 지속을 분리시켜 생각한 고대 우리 조상들의 신화적 사유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얻어진 한국 불기원 신화의 존재양상을 토대로하여 불기원 신화의 서사적 실현 형태를 분석하고, 그것의 주제적 층위를 밝혔다. 그것의 서사구조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불의 획득과 관련한 서사구조는 〈불 획득의 가능성〉 - 〈불 획득의 시도〉 - 〈획득된 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인간과 자연현상으로서의 불 사이에 신성한 주체자를 개입시킴으로써 상상과 허구의 불획득 散文을 산출해 낸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서의 불, 인간, 신성한 주체자 이 삼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최초 불획득과 관련된 인간문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주제 층위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과 관련한 서사구조는 〈불 켜는 방

법 획득의 가능성) -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시도〉 - 〈획득된 불을 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인간과 과학적 현상으로서의 불을 켜는 방법 사이에 신성한 주체자를 개입시킴으로써 상상과 허구의 불을 켜는 방법 획득의 散文을 산출해 낸다. 이것은 과학적 현상으로서의 불을 켜는 방법, 인간, 신성한 주체자 이 삼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최초 불을 켜는 방법의 획득과 관련된 인간문화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주제 층위를 형성한다.

세째 世界 불기원 신화의 서사형태와 비교고찰하여 한국 불기원 신화의 보편과 특수를 밝혔다. 먼저 세계 불기원 신화의 서사구조가 한국 불기원 신화의 서사구조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화와 지역적 조건과는 무관하게 한국 불기원 신화를 포함하여 세계 불기원 신화의 보편적 서사구조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면 문화적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 구성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불 소유의 주체, 소유의 방법, 소유의 장소, 불 획득의 주체, 획득의 방법, 세부지선 등에서의 차이가 그것이다. 특히 한국 불기원 신화의 경우 그것의 주요한 관심은 획득의 주체와 획득의 방법에 놓여 있다. 이것은 결국 허구적 상상적 요소들인 소유 주체, 소유 방법, 소유 장소 등이 고등 종교화 및 역사적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 및 퇴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네째 한국 불기원 신화가 반영하고 있는 문화사적 전개양상을 살폈다. 논의의 결과 우리의 불기원 신화는 불이 없던 상태에서 불을 획득하는 단계로, 그리고 불을 켜는 방법을 획득하는 단계로 이행해왔던 문화 진화과정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불기원 신화는 일면 과장되고 상상된 허구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하더라도 우리 원시조상들의 과학적 사유의 표현이자, 그들이 영위한 문화에 대한 신성한 역사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불은 신화, 전설, 민담뿐만아니라 현대소설에서도 빈번히 반

복되어 나타나는 화소이다. 그러므로 한국 서사문학에 있어서 불의 상징성을 해명하는 작업은 긴요하다하겠다. 따라서 불기원 신화연구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 한국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불의 상징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김무조(1988), 『한국신화의 원형』 서울 正音文化社.
김태곤(1985), 『韓國의 巫俗神話』 서울 집문당.
김화경(1987), 『韓國 說話의 研究』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김헌선(1994), 『한국의 창세신화』 서울 길벗.
빈미정(1994), 〈중국고대기원신화의 분석적 연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손진태(1982),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神 誌(1973), 〈三一神話(外)〉 『한국명저대전집』 서울 대양서적, 1973
연변조선민속학회 조선족민속연구소편(1994), 『조선민속연구』 제1권(서울 서울대 출판부)
임석재(1989), 『한국구전설화』 5(서울 평민사)
조선미술가동맹편(1989), 『조선미술사』 서울 한마당.
황패강(1982), 『한국서사문학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A.Dundes(1980), 『The morphology of the North American Indian folktales』 F.F.Communication, No 195(Helsinki).
A.Dundes, ed(1988), 『The Flood Myth』(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G,Frazer(1974), 『Myths of the Origin of Fire』(New York Hacker Art Books).
V.Propp(1968), 『Morphology of the folktale』(University of Texas press).